

박물관



경영대(58동)에서 사회대(16동) 방향으로 걷다 보면 화려한 철쭉들과 푸른 나무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넓은 공터를 만나게 된다. 고즈넉한 공터 사이로 넓고 단단한 건물이 보인다. 바로 서울대학교 박물관이다.

박물관 전시 관련 정보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전시 및 각종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시의 경우 상설전과 특별전을 통해 전통 미술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테마를 다루어 왔다. 현재 예정된 전시로는 사진전 '마지막 황실, 잊혀진 대한제국' 이 있다.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5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과거 대한제국 황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조명하고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수요교양강좌 개설 -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높아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요교양강좌는 매회 200여 명이 찾아올 만큼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2006년 상반기(3월 15일-6월 14일) 수요교양강좌의 테마는 '조선(朝鮮)을 그리다'로, 시각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의 삶과 문화사를 살펴보고 있다. 강좌는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린다. 2003년도에 운영된 수요교양강좌 강연 내용은 올해 3월 초 '한국의 미술가'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영화 상영 프로그램 - '박물관에서 만나는 영화'

한편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만나는 영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테마와 관련된 고전 영화들을 3월, 4월, 9월, 10월에 한해 매주 상영하고 있다. 이번 2006년 상반기의 경우 '여성과 영화'라는 주제 하에 '내 책상 위의 천사'를 비롯한 총 5편의 영화가 박물관 강당에서 상영되었다.



도서자료실 운영

또한 박물관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서자료실은 학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장소다. 박물관 1층의 도서자료실에는 미술사와 고고학 관련 서적이 다수 비치되어 있는데, 희귀본도 많아 타고 학생들도 자주 찾아오곤 한다. 이곳에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지만 대출할 수는 없다. 도서자료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박물관 개관 시간 및 기타 정보

서울대학교 박물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개관하고 평일에는 마감 30분 전까지 입실 가능하다. 개교기념일과 국경공휴일, 일요일에는 휴관한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해 온 전시 관련 정보나 관람 정보는 <http://museum.snu.ac.kr/>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